

하와이 사진신부 서사에 나타난 여성 디아스포라 양상 *

-이주여성의 행위자성과 장소 만들기의 관점에서-

임정연 **

-차 례-

1. ‘하와이’의 장소성과 ‘사진신부’의 행위자성
2. 초국가적 경계 넘기와 정체성 횡단
 - 2.1. 젠더화된 공간 구획의 교란
 - 2.2. 유사친정관계망과 상상의 글로벌 공동체
3. 도시의 네트워크와 ‘고향’이라는 역설적 공간
 - 3.1. 친교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교차와 협상
 - 3.2. 글로벌스케일로의 도약과 초국가적 가족 만들기
4. 나가며

* 이 논문은 2022년도 아모레퍼시픽 재단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문초록]

이 연구는 이주여성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20세기 초 근대 식민지 조선에서 출현한 하와이 사진신부 서사의 재현방식과 의미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고는 장편소설, 희곡, 시, 동화, 구술 등 다양한 장르와 1920년대부터 2020년에 걸친 광범위한 시기에 걸쳐 존재하는 사진결혼 및 사진신부 소재 문학 텍스트들을 검토한 뒤, 사진결혼의 실제적 진실을 재구하고 사진신부의 재현 방식을 계보화하는 작업을 거쳐 21세기 사진신부 서사에 나타난 이주 여성의 역동적인 장소 만들기 과정을 분석했다.

사진신부 서사에서 여성 인물들은 집단 농장 내 가정에서의 협상과 유사 친정 관계를 통해 생존 전략을 만들어가고, 타문화와 접촉하면서 상상의 글로벌 공동체를 경험, 문화 번역자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한다. 그리고 도시로의 이주 후에는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고 사회적 자본을 쌓아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고 초국가적 가족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아시아 결혼이주 여성에서 글로벌 트랜스 로컬의 주체로 자신의 위치를 조정해 간다.

이처럼 트랜스 이주의 맥락에서 사진신부는 초국가적 담론을 넘어 로컬과 로컬을 연결하며 자기 정체성을 협상하고 새로운 장소를 만드는 능동적 행위자로 재해석될 수 있다. 이때 하와이는 디아스포라적 이동과 상호연결성에 의해 생성된 고향으로서 역설적인 장소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21세기 이주의 여성화가 가속화되는 다문화 지형에서 사진신부 서사는 사진신부의 존재 방식을 국가의 대항 내러티브를 통해 구성되는 단독자의 서사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제고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하와이, 사진신부, 이주여성, 이동성, 디아스포라, 행위자성, 다중정체성, 상상의 글로벌 공동체, 초국가적 가족, 트랜스로컬 주체, 역설적 공간

1. ‘하와이’의 장소성과 ‘사진신부’의 행위자성

이 논문은 20세기 초 역사적 실체로서의 하와이 사진신부의 존재와 이를 모티프로 한 소설 작품들을 통해 한인 여성 디아스포라의 존재 방식과 함의를 제고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사진신부(picture bride)’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중매인에 의해 혼인 상대와 사진을 교환하고 남성의 초청을 통해 결혼이 성사되는 일시적 풍속으로서의 ‘사진결혼’ 제도에 의해 발생한 여성 이주 집단을 의미하며, 특별히 하와이 사진신부라 하면 하와이 노동 이민 1세대 남성들과 사진결혼을 통해 혼인한 조선인 신부를 일컫는다.¹⁾

주지하다시피 ‘하와이’는 한인들의 첫 노동 이민지로, 1902년 12월 22일 노동자들의 하와이 이민이 시작된 이래 1905년 11월 일본의 이민 금지령으로 이주가 중단되기까지 약 7천여 명의 조선인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하와이로 이주²⁾했다. 이민이 금지된 1905년을 전후한 시점에 하와이 한인 노동자들의 남녀 성비는 대략 10:1 정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하와이의 낯설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달프고 외로운 생활을 지속하던 독신자들이 술과 노름에 빠지면서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
- 1) 한국에 있는 조선인 여성에게 미국의 한인 남성들의 사진을 보내 중매인을 통해 소개하고, 결혼을 원하는 여성이 미국에 와서 결혼을 하는 형태이다. 하와이 정부의 노동력 수급을 위한 동양인 이민 정책과 이주 노동자들의 이민 생활이 갖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동양인 독신 청년들의 일시적 혼인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경민 『경성, 사진에 박히다』, 산책자, 2008, 210면.
 - 2) 1898년 하와이가 미국에 합병된 후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주들은 원주민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인과 일본인 노동자를 수입했는데, 중국인 배척법(1882년)으로 인한 일본인 노동자의 급증, 일본인 노동자 파업(1902년) 등을 겪으며 한인 노동자 수입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 이민 회사들은 한성에 대륙식민회사를 세우고 조선인 노동자를 모집하고, 조선 정부는 서울, 인천, 부산, 원산 등지에 ‘개발회사’를 세우고 이민자를 모집, 한미조약 6조에 따라 하와이에 노동 이민을 보내게 된다. 1902년 깰릭호를 타고 제물포항을 출발한 한인 이민 노동자 121명 중 신체검사와 예방접종을 거쳐 입국 심사를 통과한 첫 노동 이민자는 86명이었다. 이후 1905년 11월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값싼 조선인 노동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 이민금지령을 내렸고, 조선인의 하와이 이주가 중단되었다. 고승제, 『한국 이민사 연구』, 장문각, 1973, 195-211면; 김성은 외, 『한국근대여성의 미주지역 이주와 유학』,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14-21면.

생활이 문란해지자 농장주들과 관계 당국의 협조로 사진결혼이 성사되었다. 이렇게 해서 1910년 최초의 사진 신부 최사라를 필두로 미국 이민법 개정으로 사진결혼이 금지되었던 1924년까지 도미한 한인 사진신부의 규모는 951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미국 본토로 간 115명을 제외하고 800여 명에 달하는 사진신부가 하와이로 이주했다.³⁾ 따라서 하와이 사진신부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미국 하와이로 혼인을 위해 이주한 한인 여성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이하 ‘사진신부’라 칭한다)

이제까지 사진결혼 혹은 사진신부 관련 연구는 사진신부 당사자 및 2세대 자녀들의 구술자료⁴⁾ 등에 의거해 주로 역사학, 사회학, 여성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개별 사진신부의 생애사부터 미주 한인사나 이민사의 일부로 혹은 해외한인여성 독립운동사의 맥락에서 사진신부의 젠더적 역할과 민족주의적 성격, 아시아여성 이민자로서 미국 사회 내에서의 위치, 한인신부집단의 정치적 연대를 보여주는 영남부인회의 활동상 등⁵⁾, 사진신부를 둘러싼 사회·역사적 배경과 정치 역학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의미있는 성과들이 축적되어 왔다. 사진신부의 능동성, 자립심, 애국심에 초점을 맞춘⁶⁾ 이들 연구 성과에 의하면 사진신부의 역사적 의의는 ‘미주 한인사회 발전과 민족독립운동에 기여한 선구자’라는 프레임 안에 고정되어 있다.

3) 김지원, 「조선인 여성들의 미주지역으로의 도래」, 김성은 외, 앞의 책, 22면; 김점숙 「한인 사진신부들의 사회·경제 활동」, 김성은 외, 앞의 책, 30면.

4) 1970년대 이후 구술 채록 자료들이 축적되기 시작했는데, 이를 엮은 책들이 간행되기도 했다. 문옥표 외,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일조각, 2017), 로버타 장(Roberta Chang), 『하와이의 초창기 한인사회: 1903-1940』(북코리아, 2012) 등 참조.

5) 김지원, 「미국의 일본인 배척운동과 한인 사진신부의 이주, 1910~1924」, 『미국사연구』 44집, 한국미국사학회, 2016; 홍윤정, 「하와이 한인 여성단체와 사진신부의 독립운동」, 『여성과 역사』 26집, 한국여성사학회, 2017; 김지원, 「한인 사진신부의 적응과 특성, 1920~1945」,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55호, 2020; 노선희, 「한인여성 디아스포라 공동체 연구-사진신부의 공동체, 영남부인실업동맹회(영남부인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34집, 2021; 노선희, 『사진신부 이야기』, 북코리아, 2023.

6) 하와이 사진신부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전시하고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 역시 사진신부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인 사회의 기틀을 마련한 개척자로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사진신부를 민족이라는 프레임에서 해석하면, 사진신부라는 존재는 국민국가의 구성원, 이민자 집단의 표준으로 추상화되어 제국과 식민지, 고향과 타향, 적응과 부적응이라는 양극단에서 체제의 희생자이거나 저항의 주체 어느 한쪽으로만 해석될 수밖에 없다.

본고가 하와이 사진신부의 존재를 초기 이주여성 혹은 여성 디아스포라의 맥락에서 재사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주여성은 거주국이 부여한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출신국에서 형성된 문화적 정체성을 고수하지도 않으면서 “경계를 횡단하는 이동성을 바탕으로 국경과 영역을 해체하는 행위자”⁷⁾로 다중의 정체성을 갖는 존재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이주여성을 글로벌 위계질서의 말단에서 다중적인 모순과 억압에 처한, ‘세계화의 하인’⁸⁾으로 개념화하는 최근의 이주 여성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최근의 이주여성 연구는 주변부에 위치했던 이주여성이 이동성을 갖게 됨으로써 어떻게 생존회로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중심부로 이동하는가의 문제, 즉 이주여성을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 주체로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이주의 젠더성은 공간성, 즉 장소의 문제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사유된다.⁹⁾

물론 하와이 사진결혼은 국제결혼으로 발생한 통상의 결혼 이주와 형태는 다르지만, 사진신부 역시 이주국 하와이에서 겪는 차별화된 경험 가운데 이질적인 문화와 규범들의 차이를 수용하고 주체적인 교섭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생존’에 성공한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같

7) 정현주, 「다문화경계인으로서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대한지리학회지』 50권3호, 대한지리학회, 2015, 290면.

8) 파레냐스는 그의 저서 『세계화의 하인들』에서 로마와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한 필리핀 이주가사노동자를 연구하면서 글로벌 위계질서의 말단에 설정된 이들의 존재를 ‘세계화의 하인’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라셀 살라자르 파레냐스, 문현아 역, 『세계화의 하인들』, 여이연, 2009 참고.

9) 이런 시각에서 공간성과 여성 이주를 접목시키는 사유를 전개해온 정현주의 일련의 연구들을 주목해볼 수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권력지리학의 개념들은 정현주의 다음 연구들에서 빌려왔다. 정현주,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지』 43권65호, 대한지리학회, 2008; 정현주, 「이주여성들의 역설적 공간: 억압과 저항의 매개체로서 공간성을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에 접목시키기」, 『젠더와 문화』 5권1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2 외.

은 사진신부의 생존 전략을 권력의 젠더 지리학¹⁰⁾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유용하고 또 타당하리라고 본다.

권력의 젠더 지리학은 스케일, 사회적 위치, 에이전시라는 세 가지 개념을 핵심적인 분석 틀로 삼고 있다. 페미니스트 지리학자 린다 맥도웰이 몸에서부터 초국가 단위까지 여러 층위의 장소에서 작동하는 젠더 규범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¹¹⁾했던 ‘스케일(scale)’은 사회적 과정이 일어나는 위계적 층위를 일컫는 말로 통용되다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의미로 재해석되고 있다.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스케일은 고정되거나 분절된 위계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관여하는 가변적이고 상대적, 유동적인 성격을 띤다. 특히 미시적 차원에서 구성되는 스케일은 이주여성에게 일종의 저항과 정체성 협상의 수단으로 작용한다.¹²⁾

사진신부들이 맺는 다양한 관계 양식은 하와이라는 장소의 다층적인 스케일을 통해 구성된다. 따라서 “몸, 가정, 국가, 공동체, 지구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사회적 권력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장소들 사이의 경계”¹³⁾에서 사진신부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개념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위치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는 요인들을 통해 창출되는 권력의 위계질서 속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태생적으로 갖는 계급,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국적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위치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다중 정체성(multiple identity)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에이전시(agency)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위치 속에서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감성 등을 지칭하는 용어다.¹⁴⁾ 에이전시, 즉 ‘행

10) 페미니스트 인류학자인 Mahler과 Pessar가 이주는 젠더화된 과정이며 그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과정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주를 ‘권력의 젠더 지리학’이라고 묘사했다. 여기서 ‘지리학’은 젠더관계가 다중스케일에서 작동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정현주(2008), 앞의 글, 902면.

11) 린다 맥도웰, 여성과공간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 한울, 2019, 26-30면 참조.

12) 정현주(2012), 앞의 글, 111-112면.

13) 이현재, 「여성의 이주, 다층적 스케일의 장소 열기 그리고 정체성 저글링」, 『여성문학연구』 2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19면.

14) 사회적 위치와 에이전시 개념은 Mahler과 Pessar의 설명을 따른 것이다. 정현

위자성'은 사회적 구조나 집단적 정체성과 대비되는 개별자의 힘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단독자로서 주체적인 선택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협상해가는 사진신부들의 실천 행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개념이라 판단된다.

이처럼 사진신부의 정체성과 사회적 위치에 대한 주체성과 협상력은 '이주'라는 이동성 경험과 관련이 있는 바, 이주 여성을 새로운 장소만 들기를 실천하는 능동적 주체로 이해하고자 하는 트랜스 이주 담론의 자장 안에서 재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따르면, 사진신부는 "국경을 뛰어넘어 확장된 사회 네트워크를 통하여" "로컬에의 정착을 통한 지속적인 장소화"¹⁵⁾를 실천하는 트랜스로컬 주체성(translocal subjectivity)을 지닌 존재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이 같은 맥락에서 사진신부 문학서사를 주목해보고자 한다. 문학 텍스트의 특성상 소설에는 동질화된 집단으로 환원되지 않는 단독자로서 사진신부가 갖는 행위자성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사진결혼 및 사진신부를 소재로 삼은 문학 텍스트는 모두 13편 정도가 확인되는데,¹⁶⁾ 이들 작품은 1920년대부터 2020년에 이르는 광범위한 발표 시기와 희곡, 시, 소설, 동화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를 뿐 아니라 작가의 성별과 국적에도 차이가 있다.¹⁷⁾ 이는 작품이 놓여 있는 콘텍스트에 따라 사진신부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지만, 대부분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해 사진신부의 도미 경

주(2008), 앞의 글, 902면.

- 15) 이영민, 「글로벌 시대의 트랜스이주와 장소의 재구성」, 『문화역사지리』 25권1호, 문화역사지리학회, 2013. 57면.
- 16) 사진결혼 모티프가 중심이 되는 작품을 출간 연도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윤백남의 『운명』(1920), 캐시 송의 시 <사진신부>(1983), 최은경의 웹소설 『블루 하와이』(2010), 임재희의 『당신의 파라다이스』(나무옆의자, 2013), 앨런 브랜너트의 『사진신부 진이』(문학수첩, 2014), 박경숙의 『바람의 노래』(문이당, 2015), 이금이의 『알로하 나의 엄마들』(창비, 2020). 이 밖에 주요섭의 『구름을 잡으려고』(1935)와 조정래의 『아리랑』 4권(해냄, 1994), 정세라의 『시선으로부터』(문학동네, 2020)에 사진신부 모티프와 이야기가 일부 삽입되어 있다.
- 17) 『당신의 파라다이스』를 쓴 작가 임재희는 1985년 하와이로 이민 간 이민자 출신이고, 『사진신부 진이』는 미국 작가 앨런 브랜너트의 작품으로, 2009년 *Honolulu*라는 제목으로 먼저 발표된 영문소설을 번역한 경우에 해당한다. 『바람의 노래』의 작가 박경숙 역시 90년대 초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경험이 있다.

위와 하와이에서 맞닥뜨린 상황 등 기본 설정과 스토리라인 면에서는 유사성을 띠고 있다.¹⁸⁾

이 가운데 특히 2010년 이후 발표된 임재희의 『당신의 파라다이스』, 앨런 브레너트의 『사진신부 진이』, 박경숙의 『바람의 노래』, 이금이의 『알로하 나의 엄마들』에서 사진신부는 고국에서 뿌리뽑혀 낯선 장소에 이식된 추방자, 수난자, 희생자로 대상화되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발화하는 목소리의 주체로 등장한다. 여기에는 일방적으로 강제된 주변부 정체성에 머물지 않고 제국과 식민지, 고향과 타향의 경계 너머 다양한 문화적 차이들과 규범들을 가로지르며 주어진 정체성을 변형시키고 교섭해가는 인물들의 역동적인 힘이 부각되어 있다.

이에 본고는 사진신부들이 자신의 신체부터 가정, 외부 공간, 로컬과 글로벌에 이르는 다층적인 스케일에서 어떻게 하와이라는 장소의 정체성을 전유하고 정체성 협상과 장소 만들기의 주체로 자신의 위치를 재설정하는지, 하와이 사진신부의 능동적 행위자성에 주목해 이 소설들을 독해해보고자 한다.

18) 현재 문학 분야에서 사진결혼과 사진신부 서사 관련 연구는 단 2편 정도만 확인되고 있다. 강진구의 「국제결혼담론의 계보학적 연구: ‘사진결혼’을 중심으로」(『아시아여성연구』 50권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1)와 오윤호의 「제국의 경계 공간과 디아스포라의 위치-하와이 사진신부를 중심으로」(『현대문학이론연구』 68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가 그것이다. 강진구의 논의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을 계보학적으로 밝히는 과정에서 ‘국경을 넘는 결혼’이 의미화되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근대 초기 사진결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과 윤백남, 주요섭의 작품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의 관심은 사진결혼을 부정적으로 형상화한 두 작품에 작용하고 있는 남성들의 가부장 관념과 민족주의적 관념의 정체를 밝히는 일에 있다. 오윤호의 논문은 2000년대 작품들을 대상으로 사진신부의 초국가적 정체성과 한인 미국 이주의 문학적 재현방식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 논문은 디아스포라 여성을 바라보는 기존의 탈식민주의 관점의 맥락에서 사진신부의 위치와 정체성을 재확인한다. 물론 사진신부의 능동적인 정체성에 주목하고 하와이의 공간적 특성을 통해 트랜스내셔널 문학의 의미를 밝히고 있어 본 연구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

2. 초국가적 경계 넘기와 정체성 횡단

2.1. 젠더화된 공간 구획의 교란

사진결혼 기획은 “해외 거주 민족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멸종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¹⁹⁾으로 인식되었다. 당시 하와이 교민사회의 상황과 관련해 조정래의 『아리랑』에는 사진결혼이 단지 하와이 노동자들의 방탕을 막는 데서 나아가 조선 동포 사회의 안정과 독립군기지 구축을 위한 민족의 생존 전략의 일환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파인애플농장에서 수입이 좋아지게 되자 사진결혼이 전보다 훨씬 더 활기를 띠게 되었다. 자꾸 나이들은 먹어가고, 결혼비용은 비축되고, 남들의 결혼생활이 부럽기도 하고…그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거기다가 국민회에서나 각 교회에서는 사진결혼을 적극 권하고 있었다.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피하기 어려운 생활의 방탕과 돈의 낭비를 막자는 것만이 아니었다. 모두 결혼을 해서 노동력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조선동포 사회를 안정되게 형성하자는 것이었다. 그 최종 목적은 독립군기지의 구축이었다. (『아리랑』 4권, 329면)

그런데 민족국가의 가부장 담론 안에서 기획된 사진결혼이 정작 가문과 혈연 중심의 봉건적 관념이 지배하던 조선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되기는 쉽지 않았다. 1914년 『매일신보』가 3회에 걸친 연재 기사로 19세 사진신부의 비극적 사연²⁰⁾을 전한 이래, 몇 년간 연이어 보도되던 사진결혼 관련 기사들은 당시 여론의 향방을 가늠하게 해준다.

마산 마동면 금남리 18세된 계집은 그 동리 일경에는 아름다운 계집으로 칭호가 있던 터이라, 작년 겨울에 미령(米領, 미국) 포와(布哇, 하와이)있는 이모(李某) 38세 된 자로부터 사진결혼의 소개가 있어 피차 신분을 조사한 결과 나

19) 강진구, 앞의 글, 231면.

20) 평양 사는 19세 과부가 자신의 어린 딸과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다른 현실과 남편의 구타와 학대를 견디지 못해 호놀룰루의 모 교회로 도망쳐 참혹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도 틀리지 않는 일을 알고 다만 사진의 얼굴만 보고 허락이 되어 (중략) 사진만 보고 결혼이 되어 포와에 건너간 자가 대정(大正) 2년에는 8명이요, 동 삼년에는 6명이요, 본년에 들어서는 전기 김성녀를 합하여 3명인즉 통계가 17명의 다수에 달한다는대 이런 사진결혼하는 중매는 모두 기독교의 목사가 많이 취급을 하며 소개하는 여인은 기독교 신자라는대 처음에 데려갈 때는 행복있는 혼인으로 말을 하여 간 후는 계집을 교환 또는 넘기는 풍습이 있다 한즉 사진결혼에는 깊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더라.²¹⁾

기사들은 중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속임수와 기독교 목사의 감언이설에 넘어간 어리석고 미숙한 여성들의 사연부터 조선을 떠난 사진신부들이 거치는 각종 검사와 절차들,²²⁾ 미국 하와이의 허상과 하와이 이주민의 비참한 실상을 꼬집는 내용까지 대개가 사진결혼의 폐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백남의 희곡 『운명』과 주요섭의 소설 『구름을 잡으려고』는 사진결혼 제도가 시행되고 그 자장 안에서 결혼에 대한 관념이 변화가던 1920년대와 1930년대 창작된 작품으로, 두 작품 모두 사진신부에 대한 당대의 부정적 담론을 반영하고 있다. 윤백남의 『운명』은 사진신부 박메리의 비극적 삶을 멜로드라마적 구도 속에 배치함으로써 자유연애의 이상에 반하는 봉건적인 구습 혹은 ‘사기결혼’이라는 측면에서 사진결혼의 폐단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주요섭의 『구름을 잡으려고』는 사진결혼이 공식적 담론에서 사라진 1930년대 창작된 작품으로 하와이 이민 1세대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만큼 남성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진신부 순애를 자신의 욕망을 좇아 남편을 배신한 여성으로 그리고 있다.

사실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였던 여성들이 사진만 보고 낯선 땅에서 결혼을 결심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하와이 이민 3세인 캐시 송(Cathy Song)은 시집 『사진신부 Picture Bride』(1983)의 표제시 <사진신부>에서 36

21) 「태평양을 격하여 사진으로 결혼, 미국에 있는 신랑 조선에 있는 신부, 사진만 보고 혼약, 간간 있는 큰 낭패」 『매일신보』, 1915.3.6.

22) 「신랑 찾아 만리타향에 미국으로 혼인하여 가는 조선 여자」 『매일신보』, 1917.9.14

세의 할아버지에게 사진신부로 시집은 23세 할머니의 막막한 심경을 낫선 “사탕수수밭으로부터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 여자는 나보다 한 살 아래/ 23세의 나이로 한국을 떠났다./ 그 여자는 아버지의 짐문을 닫고/ 그냥 떠났다./ 부산의 삼바느질 집에서/ 그때까지 이름도 모르고 있던/ 섬의 포구까지는/ 먼 먼 여로였다./ 그 포구에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그 여자의 사진을/ 사탕수수밭 노동자 막사의/ 희미한 등불 밑에/ 들여다 보고 있었다./ 그 남자의 방안엔/사탕수수 대궁이로부터 나온/ 나방이가 날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딸을 어찌 보냈던가?/ 그 여자가 낫선 남자/ 남편의 얼굴을 대했을 때/ 남자는 여자보다 13년 연상이었다./ 여자는 공손하게 웃저고리의 비단고름을 풀었던가?/ 그 여자의 천막같은 웃음/ 남자들이 태우고 있던 사탕수수밭으로부터/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으로 가득했었다.²³⁾

2000년대 사진신부 소재 소설들은 사진결혼이 여성들의 ‘더 나은 세계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정에서 출발한다. 조선의 반상 윤리와 신분 제도에 대한 반발로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²⁴⁾ 희망,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 있고, 돈을 쓰레받기로 쓸어 담고, 여자들도 맘껏 공부한다는” 곳에서 “소설 속 연인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²⁵⁾ 살고 싶은 꿈, 여성에게 금지된 ‘공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가치있는 사람이 되고 싶”²⁶⁾다는 욕망 등, 당시 조선에 잔재한 전근대적 요소들- 보수적인 젠더 관념과 윤리의식, 반상 신분제도와 혼인제도 같은 구습 등-이 소설 속 여성 인물들로 하여금 국경을 넘는 이동을 추동한 계기가 되고 있다. 즉 결혼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더 나은 존재로의 전환이라는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²⁷⁾ 따라서 국가의 경계를 넘는 사진신부

23) 캐시 송, <사진 신부>, 박남수 외, 『사진신부-재미대표작가문학선』, 월인, 2003, 193-194면.

24) 박경숙, 같은 책, 71면.

25) 이금이, 앞의 책, 31-32면.

26) 엘런 브렌너트, 앞의 책, 35면.

27) 강준만은 한국 사진신부의 결혼 동기가 일본 사진신부와 달리 ‘더 나은 세계에 대한 동경’보다는 ‘지독한 가난’과 ‘조국의 암울한 현실과 막막한 미래’가 주요 이유였다고 한 바 있다.(강준만, 『한국근대사산책』 6권, 인물과사상사, 2008, 18

의 ‘이동’은 여성을 사적 영역에 가두고 이동성을 제한했던 근대 가부장적 민족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물론 그 꿈은 하와이에 도착해 신랑을 만나는 순간부터 깨진다. 상상과 실제, 희망과 미망, 허상과 실상 사이의 괴리가 대부분의 사진신부 서사의 첫 번째 갈등 요인이 된다.

다음 예문들은 하와이 사진결혼에 대한 상상과 기대가 무엇으로 구성되고, 현실과의 낙차에서 오는 배반감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

“하와이란 곳이 대체 어떤 곳이에요?” 내가 물었다.

“아주 아름다운 섬이야. 열대의 낙원이라 먹을 것도 풍부해서 배가 고프면 어디서나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 먹을 수 있지! 살아가는 돈은 거의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극소에서 번 돈을 조선에 있는 식구들에게 보낸단다. 전 씨네는 큰딸을 호놀룰루에 있는 부자 사업가에게 시집보냈는데, 며칠 전에 엄청난 음식과 옷들을 선물받았다더구나.” 아주머니는 눈을 빛내며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쏟아냈다. (『사진신부 진이』, 59-60면)

사진 속 그 남자, 나영의 짝 한인 사회 지도자? 나는 사진으로만 보았던 얼굴을 바로 앞에서 본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다. 그러나 뭔가, 많이 달랐다. 혹시 사진 속 그 남자의 아버지가 대신 나온 걸까. 굳이 반백의 머리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흰머리가 이마를 덮고 있는 모습에 눈길도 머물렀다. 검게 탄 얼굴 위에서 그것들은 은빛으로 빛났다. 나는 그것들이 내뿜는 묘한 아름다움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그것은 아름다움도 추함도 아닌 시간의 흔적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의 과라다이스』, 19면)

먼저 신부를 맞은 농장의 남자들은 도착한 그날로 여자를 정복하라고 충고했다. 처녀들은 햇볕에 까맣게 타고, 나이 먹은 신랑감을 항구에서 보자마자 도망

면) 그러나 사진신부 30명과 한인 2세 25명의 구술 기록을 분석한 김점숙의 연구에 따르면, 도미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55명 중 19명이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이고, 일제의 압제가 싫어 자유를 찾아서(7명),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6명), 가부장적인 사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1명)라고 답했다고 한다. 김점숙, 앞의 글, 36면.

쳐버리거나 조선에 보내달라고 울어대기도 했다. 또 농장의 웅색한 오두막에 들어서자마자 서류상의 혼인을 취소하겠다고 나가버리는 여자들도 있었다. 수항이 항구에서 도망치지 않았으니 이제 농장의 오두막을 보고 기겁하지만 않는다면 혼인은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바람의 노래』 57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낙원’이라는 상상, 이질적인 기후와 풍토, 낮은 풍경과 생활 환경, 그리고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노동자 남편²⁸⁾과 열악한 거주지와 같이 기대를 배반하는 현실, 소설에서 하와이의 첫인상은 이 같은 상상과 현실의 낙차에서 비롯되는 인물들의 절망감으로 채워진다. 이런 가운데 『당신의 파라다이스』의 강희는 조선에 돌아가겠다는 친구 나영에게 자신의 짝인 창석을 양보하고 나영의 배필이었던 상학과 결혼을 한다. 호놀룰루 시내 구두방과 양화점의 안주인 대신 캠프 나인 노동자의 아내로 사는 운명을 선택한 것이다. 이 소설이 주어진 조건에 절망하고 순응했던 사진신부 집단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 재생하기보다, 자발적인 선택과 의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 개별 인물의 삶을 조명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진 신부들의 거주지는 대부분 오후우 섬²⁹⁾의 파인애플과 사탕수수 농장에 위치한 집단 캠프로, 가정과 캠프 내 한인 공동체로 생활 환경이 제한되었다. 국경을 횡단한 여성들이 경계 너머에서의 일상공간에서 이동의 제약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³⁰⁾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진신부들은 남편과의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지 못

28) 사진신부들의 나이가 대부분 17세에서 24세 정도였던 데 비해, 남편들은 30세 이상 차이 나는 경우까지 있어 사진신부가 도망가거나 자살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정래의 『아리랑』에는 이 상황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기름기라고는 없이 부스스한 머리카락에 허름한 노동복을 걸친 후줄근한 모습으로 마중을 나간 훗터 많은 신랑감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중략)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든 신랑감일수록 나중에 신붓감들이 낙담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장가들 욕심만 앞세워 될 수 있는 대로 젊었을 때 짝은 사진을 보내려고 했다.”(조정래, 『아리랑』 4권, 해냄, 2020, 343면)

29) 『알로하 나의 엄마들』에서 버들과 송화가 각각 서태완와 박석보를 따라 오후우 섬 북쪽 카후쿠 농장으로 가고, 홍주는 조덕삼이 일하는 마우이 섬으로 갔던 것처럼 때로 오후우가 아닌 다른 섬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거주지는 오후우 섬의 에바 농장, 와이알루아 농장에 집중되어 있었다.

30) 정현주(2012), 앞의 글, 119면.

한 채 술과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남편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남편의 폭력을 경험한다.

게다가 남편들은 아내가 가정 경제에 일조하되, 농장일과 같은 ‘바깥일’에 나서 가장인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깎지 않기를 바라는 모순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정 일을 하는 전통적인 아내의 역할과 경제력을 갖춘 근대적 여성의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보수적이고 낡은 젠더 관념과 미국식 자본주의 경제 관념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우리가 혼인하면 당신도 집에만 있을게 아니라 농장의 무슨 일을 하든 돈을 벌어야 해요. 남의 빨래를 해 줄 수도 있고, 아이를 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처럼 농장에 나가 일을 해도 되고요.” (『바람의 노래』 69면)

이때 사진신부들은 남편을 설득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아 나섭으로써 남편과의 거래와 교환을 통해 자신의 생존 전략을 세운다. 『당신의 파라다이스』의 강희나 『알로하 나의 엄마들』의 버들처럼 대부분은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집단 농장의 식당과 세탁장에서 미혼 남성 이민자들의 밥과 빨래를 해주는 가내 서비스 분야에 종사한다. 가정 경제를 보조하는 정도의 저임금을 받았지만, 조선에서와 달리 이곳에서의 가사일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엄연한 경제활동이었다.

한편 사탕수수 농장에서 사진신부들은 인종적 위계에 따른, 남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조선인들은 타 인종에 비해 돈을 적게 받고, 같은 시간과 강도의 일을 해도 여성의 임금은 그보다 더 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자들이 받는 봉급의 3분의 2밖에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그보다 내 손을 직접 돈을 벌었다는 기쁨과 자부심이 더 컸다. (중략) 산 음식들을 집으로 가져와 찬장에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글을 배웠을 때만큼이나 큰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꼈다. (『사진신부 진이』, 108면)

물론 위 예문 속 진이의 반응처럼 아직은 이에 대한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명확하게 인지하기보다 경제력을 소유하게 된 데 대한 만족감을 앞세우는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이는 사진신부들이 노동 주체로 인종과 젠더 차별이 임금의 차이로 이어지는 불평등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체득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처럼 새로운 ‘가정’(home)³¹⁾으로서 한인 캠프는 집의 ‘안’과 ‘밖’을 동시에 점하는 존재로서 사진신부의 유동하는 정체성을 협상하는 첫 번째 장소가 된다. 사진신부는 가부장적 경제 질서에서 돈으로 환산되지 않았던 가사노동을 통해 교환가치를 창출하고, 집과 집단 농장을 오가며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구획을 교란시키면서 ‘일하는 아내’로의 정체성을 획득한다.

2.2. 유사친정관계망과 상상의 글로벌 공동체

하와이 이주 전까지 집 밖의 경험이 전무한 사진신부들에게 집단 내 한인 공동체는 고향과 같은 소속감과 안정감을 제공했다. 그러나 조선 팔도에서 모인 여러 계층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이 혼합된 한인 공동체는 일종의 문화 접경지대로 공포와 두려움, 불편함 같은 일종의 ‘접경지대 히스테리(borderlands hysteria)’³²⁾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조선에서 훈장 아버지를 둔 버들과 양반 핏줄인 수향의 경우 더욱 이를 실감했다. 수향의 몸종 윌레가 미국 문물을 빠르게 수용하며 하와이

31) 여기서 집과 가정(home)은 가족이 있는 장소, 가족이 주거하는 장, 나아가 가족 집단이나 가정생활의 의미를 가지는 사회 최소의 집단을 일컫는 말로 사용하고 자 한다. 문숙재, 윤소영, 『결혼과 노동』, 교문사, 2000, 7면.

32) 레나토 로살도는 『문화와 진리』(권숙인 역, 아카넷, 2000)에서 문화 접경지대는 ‘히스테리적’ 공간이자 창조적 공간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고 지적한다. 견고한 경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온 사람들에게 인종, 젠더, 나이, 국적, 생활양식, 지위 등이 다른 사람들 간의 문화적 교류와 교환이 일어나는 접경지대는 의심, 공포, 두려움, 불편함 등의 신경증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공간이다. 김현미, 『결혼이주 여성의 가정(Home) 만들기:문화 접경지대 번역자로서이 이주여성』, 『비교한국학』 18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0, 149면.

생활에 적응해갔던 데 비해 생활력이 부재한 수향은 “이국땅에서 참으로 하잘 것없는 사람이 돼 있었”(156)다. 수향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예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는 조선인들을 보며 조선에서의 이력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신이 노예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던 조선인들이 더 매를 맞는 걸 수향은 보았다. 대부분 전에 글깨나 읽었다는 사람들이었는데, 조선에서의 이력이 이곳에선 무용지물이라는 걸 깨치는 데 그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진 않았다. 그들은 차라리 무지렁이가 돼 군말 없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농장을 떠나갔다. 수향은 그들이 떠나간 곳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더러 조선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본토로도 갔고, 호놀룰루 시내로도 갔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중략) 사진 신부들은 아무도 목을 매지 않았다. 조선에서 온 사진 신부들은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는 적응력이 있었다. 고국에서 몸에 밴 삼종지도(三從之道)가 농장 노동자 아내의 삶을 받아들이게 했다. (『바람의 노래』, 114면)

조선에서의 학식, 신분, 자질, 용모의 무용함을 깨달은 수향은 자신의 몸에 각인된 ‘조선적인 것’을 수정하고 변경해가고자 한다. 처음 캠프 나인에 왔을 때 한 번도 스스로 해본 적이 없던 물 길기, 빨래, 밥 짓기 등의 가사 일을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지만, “한 남자의 여자로 일생을 살리라고”(85) 마음을 먹은 후부터는 태도를 바꿔 남편 갑진과의 관계를 조율해간다. 첫 아이를 사산한 후 자신의 운명을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 예와 농장에서 악착같이 일을 해 돈을 벌기 시작한다. “땅이 바뀌면 사람의 관계도 바뀌어야”(110) 한다는 사실을 수용한 결과이다. ‘고국에서 몸에 밴 삼종지도’를 새로운 문화 위계 속에 재배열해 창조적으로 발현되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한 것이다.

사진신부들의 정체성 횡단은 이렇게 조선에서 자신을 정체화하던 기호들로부터 탈구된(dislocated) 위치를 승인³³⁾하는 데서 출발한다. 수

33) 탈구된 위치는 불안, 결속으로부터 단절, 귀속감의 부재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뿌리 문화의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이주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뿌리 뽑힘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약한 자의 문화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현미, 앞의 글, 170면.

향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이들은 고국과 타국 사이의 문화적 차이에 저항하거나 이를 거부하기보다 자신의 위치를 승인하고 재설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생적으로 생존력과 적응력을 길러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 집단 농장의 한인 여성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네 편의 소설에는 모두 든든한 언니나 엄마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선(先)이민 여성들의 존재가 부각되어 있다. 이들의 존재는 사진신부들이 ‘생존’을 위해 자신보다 먼저 이주를 경험한 이들에게 의존해 생활을 영위하는 ‘이웃 의존’이라는 감정 구조³⁴⁾ 속에 놓여 있었음을 시사한다.

『당신의 파라다이스』에서 캠프 나인 여성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심영은 바람기 많은 남편의 외도를 두고 볼 수 없어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겠다”(83)는 생각으로 어린 두 딸을 데리고 하와이 이민을 결심한 노동이민 1세대에 속한다. 하와이 날씨에 맞게 한복의 길이를 잘라 입은 그녀는 양반 출신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육체 노동을 해서 자식들을 악착같이 길러내고 “여자도 배워야 한다며”(137) 캠프 여성들에게 한글과 역사를 가르치는 주체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알로하 나의 엄마들』에서 버들에게 엄마같은 역할을 해주는 줄리 어머니 개성아지매들도 같은 역할을 한다. 남편 석보에게 맞고 버들을 따라온 송화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캠프 나인 여성들의 경우처럼, 이들의 관계는 몸이 아프거나 아이를 잃거나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서로 보살피고, “주말이면 교회로, 바닷가로 그리고 캠프 나인 뜰에 모여 웃고 떠들며 가끔 고향 생각에 훌쩍대”(102)는 정서적 연대 위에 형성되어 있다. 공감과 연민에 기반한 이 같은 상호 돌봄의 여성 공동체는 유사 친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내밀한 관계망으로 엮여 있다.

이런 유사 친정 관계망의 성격을 띠는 한인 여성 공동체에 소속됨으로써 사진신부들은 타민족과 문화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점심시간은 밭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 후로도 나는 오키나와의 감자

34) 이선주, 「하와이 이민 초창기 한인들의 감정구조」, 『한국학연구』 31호,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13, 39면.

‘만주’, 하와이의 ‘하우피아 푸딩’, ‘모찌’라고 하는 일본 과자를 통해 포르투갈 여인이 준 빵과 같은 기쁨을 발견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만두와 벌꿀, 김치를 점심 도시락으로 싸 갔다. 서로 요리법을 주고받기도 한 덕분에 우리 집 저녁상에는 한국 음식 외에도 매운 마늘 소스로 조리한 중국식 가지 요리나 스페인식 볶음밥인 파이에아가 올라오게 되었다. 남편은 전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을 맛보게 된 것에 만족했는지 아무런 불만도 보이지 않았다. (『사진신부 진이』 102면)

『사진신부 진이』에서 진이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본, 필리핀, 중국, 포르투갈, 오키나와 등지에서 온 여성들과 함께 일하게 되는데, 루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 여성들이 제 나라 말로 부르는 노래에 마음을 빼앗기고, 국적과 상관없이 가사를 이해하는 경험을 한다. 각 나라에서 온 여성 노동자들은 서로 다른 도시락에서 이국의 음식들과 식문화의 차이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나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를 각 가정의 식탁에 올려 남편에게, 한인 캠프에 타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알로하 나의 엄마들』은 버들이 한인 여성들과 같이 다른 나라 캠프에서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해 본국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장면을 축제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때 여성들은 문화 교류자, 문화 전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여기서 사진신부들의 사회적 위치는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운반하고 부분적으로 현실화시키면서 유동적인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문화 번역자”³⁵⁾로 설정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적이 다른 이들 사이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피진어’는 일종의 문화융합의 기호로 해석될 수 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이런 말들은 하와이 농장에서 일할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하면서 관리인들이나 노동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피진어라고 했다. 토착 언어인 영어와 하와이어에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광둥어의 문법이나 문장 구조가 섞인 일종의 방언이었다. ‘케이키(어린이)’라는 하와이말이 ‘슈가 케인(사탕수수)’과 합쳐져서 사탕수수 묘목을 뜻하는 ‘케이

35) 김현미, 앞의 글, 148면.

키 케인'이라는 말이 되었고, (중략) 그 외에도 일본어에서 비롯된 '이치반'이나 '반고', 필리핀 사람들이 쓰는 '콤포'이라는 말도 있었다. '카우카우'는 하와이말 처럼 들렸지만 사실 중국어의 '차우차우'에서 파생된 말이었다. 그 독특한 억양과 아름다움 때문인지 피진어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와 닿았다. (『사진신부 진이』 102면)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 동양과 서양의 언어, 발음과 구조가 뒤섞여 지배 언어인 영어의 장악력을 해체하는 피진어는 이민자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이면서 나아가 유대감을 형성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물론 이들 사이의 유대감은 루나로 상징되는 대리 권력의 지배와 폭력에 대항하는 피지배계급 이민자라는 위치에서 형성되는 감정 작용이다.

따라서 하와이 집단 농장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피진어는 소통의 언어이자, 글로벌 시민의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협상의 언어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피진어는 불완전한 시민권을 지닌 하층이민 노동자들이 연대를 통해 상상의 글로벌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³⁶⁾는 희망의 증거이기도 하다.

사진신부 서사에서 하와이는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했던 고유한 한국적 가치들과 이질적인 문화들을 교류하고 협상하는 문화적 접촉지대로 기능한다.

3. '도시'의 네트워크와 '고향'이라는 역설적 공간

3.1. 친교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교차와 협상

대개의 사진신부 서사는 사진신부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며 집단 농장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전반부와 농장에서 도시로 이주한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후반부로 나뉜다. 실제로 1920년대에 이르면 많은 한인들이 더 나은 소득과 자녀 교육을 위해 사탕수수 집단농장을 떠

36) 정현주(2012), 앞의 글, 131면.

나 도시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³⁷⁾ 처음에는 일거리를 찾아 미군 부대가 있는 와히아와(Wahiawa)나 비백인 저소득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카팔라마(Lower Kapaliama) 지역으로 이주³⁸⁾했다가 점차 호놀룰루 도시로 이동해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소설 속 사진 신부들의 도시 이주 동기는 남편과의 관계나 직종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비록 수동적인 이유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농장에서 도시로의 장소 이동은 사진신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자발적인 노동의 주체로 변화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여기에는 ‘이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폭행과 같이 혼인 과탄의 책임이 명백하게 남편에게 있는 경우 도시로 온 사진신부들은 남편에게 별거나 이혼을 요구한다. 『바람의 노래』의 수향은 자신의 무력감을 견디지 못하고 폭행을 행사한 남편 갑진을 떠나 호놀룰루로 거주지를 옮긴다. 『사진신부 진이』의 진이 역시 남편의 폭력으로 아이를 유산하고 앞으로 낳게 될 “그 아이까지 노예처럼 살도록 만들 수는 없”(120)다는 이유로 무작정 호놀룰루로 떠나온다. 별거 상태로 지내던 수향과 진이는 이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한다. 도시 진출 이후 수향이나 진이가 이혼을 실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혼이 기피되었던 보수적인 한인공동체가 아닌 도시에서 형성한 사회적 관계들이 영향을 미쳤다.

진이는 우연히 위협에 처한 자신을 구해준 네브래스카 출신의 성매매 백인 여성 메이 톰슨의 집에 기거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진이는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신변을 지켜주고 증언을 해준 메이, 아파나 형사, 탈면 변호사 등의 도움과 합리적인 이혼 시스템에 힘입어 이혼을 실행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도시로의 이주와 이혼은 수향과 진이가 도시에서 자립해 경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결절점으로 작용한다. 메

37) 이사 지역은 주로 파인애플 농장과 통조림 공장이 있는 와히루아 지역이거나 호놀룰루 인근, 릴리하(Liliha)와 팔라마(Palama) 지역, 스코필드 버락 등이다. 한인들의 구술 연구를 진행한 패터슨은 한인들은 중국인과 더불어 가장 많이 오아 후섬과 호놀룰루로 이사를 온 도시지향적이고 상업지향적인 민족이라고 평가했다. 웨인 패터슨(Patterson, Wayne), 정대화 역, 『하와이 한인 이민 1세: 1903~1973』. 들녘, 2003, 136-139면, 이선주, 앞의 글, 53면 재인용.

38) 노선희, 「한인여성 디아스포라 공동체 연구」, 『여성과 역사』 34, 2021, 163-164면.

이는 진이의 손재주를 알아보고 옷 수선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메이 덕분에 진이는 자신의 손재주가 상품이 되고, 자신이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협상’할 수 있는 주체임을 자각하게 된다. 메이의 집이 있는 호놀룰루 이빌레이 마을은 하올레, 일본인, 중국인, 하와이언 여성들이 모여 사는 흥등가였지만, 진이에게는 재봉사라는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서의 위치를 자각하게 한 장소였다.

수향은 월례의 주선으로 카이무키(Kaimuki) 한인 학교(이승만이 세운 남녀 공학)에서 일하다가 양복점에서 재봉일을 하면서 홀로 삼일을 낳아 기른다. 한장수와 재혼한 후에는 와히아와 지역에서 ‘고려정’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지독한 여자’(266)라는 수근거림 속에서도 약착같이 장사를 해 두 아이를 길러낸다. 수향에게 도시는 “음지가 양지 되고 양지가 음지 되는”³⁹⁾ 가능성의 공간이었다.

그런데 신부들의 노동력이 강화되는 데 비해 남편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부재’ 상태에 놓여 있다. 진이와 수향처럼 이혼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남편들은 대개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밖으로 떠도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강희의 남편 상학이나 버들의 남편 태완처럼 독립운동에 참여한답시고 밖으로만 돌아 떠나버리거나(『당신의 파라다이스』, 『알로하 나의 엄마들』), 나병에 걸린 나영의 남편 창석이나 조선으로 떠난 수향의 남편 갑진처럼 끝내 병들고 죽거나(『당신의 파라다이스』, 『바람의 노래』), 새로 인연을 맺고도 외지를 떠돌며 돌아오지 않는 한장수와 이장현의 경우처럼(『바람의 노래』, 『당신의 파라다이스』) 남성들은 늘 출가(出家) 중이다. 농장에서 타민족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생활 감각을 익히며 생존력을 키워온 신부들에 비해, 한인 중심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 머물렀던 남편들은 도시에서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후반기 서사의 대부분은 부재하거나 무능한 남편들을 대신해 사진신부들이 생계를 담당하는 실질적 가장으로 자립해가는 플롯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시로 이주한 사진신부들의 초기 경제활동은 한인 대부분이 종사하는 이발과 세탁업, 가정부, 청소부 등 가내 서비스업, 식

39) 박경숙, 앞의 책, 116면.

료품점과 여관업, 제조업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⁴⁰⁾ 소설은 이런 사실에 기반해 사진신부들이 경제적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다.

『알로하 나의 엄마들』에서 버들은 남편 태완과 호놀룰루 릴리하 스트리트에 ‘서씨 제화’라는 구두 가게를 차리고 맞춤 구두 제작과 판매를 시작했지만, 독립단 후원금 모집을 명분 삼아 집안을 돌보는데 소홀한 태완 대신 생계를 도맡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구두 가게를 정리한 후에는 백인 저택과 해성여관, 개성 아저씨네 세탁소 등을 전전하며 빨래와 세탁일, 객실 청소 등 닥치는 대로 일한다.

『당신의 과라다이스』에서 항상 남편 창석에게 의존해 살던 나영조차 창석이 나병에 걸려 몰로카이 칼라우과파 섬으로 떠나자 남편이 경영하던 호텔을 정리하고 호놀룰루로 이사한다. 이후 이장현마저 자신을 떠나자 이승만이 설립한 동지촌(동지식산주식회사)으로 들어가 손가락에 굳은살이 박히도록 숯과 가구를 만들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강희가 신랑을 바꿔줘야 할 정도로 나약했던 나영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비로소 자신의 길을 선택“(344)하는 주체적인 인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결말이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존재감이 희미한 남편과의 관계를 대신해 부각되는 한인 사진신부 간의 네트워크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 네트워크는 ‘계(契)’라는 비공식 경제활동⁴¹⁾과 교회 및 한인여성단체활동⁴²⁾을 중심으로

40) 도시로 이주하기 전까지 사진신부들이 종사한 직업은 다른 아시아 여성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가내서비스 범주의 노동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도시 이주 후 농장에 비해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 공장 노동자로 제조업 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세탁업, 가정부, 이발사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양복점, 세탁소 운영뿐 아니라 여관업과 화훼산업(카네이션 농장 운영) 등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노선희, 앞의 책, 183-196면.

41) 사진 신부들은 대부분 십대 초반의 어린 여성들이어서 자신들끼리 심리적으로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다른 인종에 비해 낮은 지위에 있던 한인 사진신부 집단은 계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호놀룰루 지역의 사진신부들은 계모임을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해 시민권이 부여된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 하숙집이나 여관을 경영하거나, 카네이션 농장을 임대해 운영했다. 계모임은 사진신부들이 가내수공업에서 여관업으로, 농장 운영을 직종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자금을 제공했고, 이러한 기회자금을 통한 직종의 변화는 한인 사진신부들이 타 인종 및 민족 출신의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노선희, 앞의 책, 191-193면.

로 형성되어 있다. 『사진신부 진이』와 『알로하 나의 엄마들』에서 각각 진이와 버들을 중심으로 한 사진신부들 간의 ‘계’는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결성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진이와 네 명의 친구들의 계모임은 “돈을 모으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 “경상도 출신으로 하와이라는 낯선 땅으로 와서 한국에서는 생각도 못했을 방식으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서로를 지지해주기 위해서”, 즉 “친구로서의 애정과 유대감”(283)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계를 통해 옥이는 하숙집을 운영하게 되고, 현주는 카네이션 농장의 규모를 확장했으며, 진이는 양복점을 차릴 수 있게 된다. 버들 역시 홍주, 송화를 포함한 7명의 사진신부들과 함께 무지개회를 결성해 계를 운영하는데, 결과적으로 홍주네 세탁소, 막선네의 이발소와 명옥의 탁아소 겸 유치원, 봉순의 식료품점 등을 모두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이들의 계 모임은 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공유하고 공동 육아도 하는 친교와 경제활동이 교차하는 가운데 존재한다. 서로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협상해가는 이들의 모습은 계가 단지 ‘정’에 의존하기보다 ‘합리성’이라는 원칙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즉 계는 사진신부들에게 정서적 연대감을 발생시키는 유사가족, 대안 가족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남자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재산을 갖게”⁴³⁾하는 경제적인 자립 기반으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소설 속에서 이들에 대한 ‘교회’의 구속력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설정은 실제로 교회가 도시로 이주한 한인교민 사회의 구심점이 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소설에서도 교회가 한글학교와 성경학교를 운영해 1세대와 2세대의 교육을 담당하고 “교회보 발간, 세탁소나 식료품 가게, 식당을 소개하는 상업 광고” “교민들의 경조사나 사람을 찾는 광고, 심지어 일자

42) 하와이의 한인 여성단체는 연장자인 노동이민 1세대, 고등교육을 마친 1.5세대와 2세대, 사진신부 집단이 섞여 있었다. 하와이 거주 한인여성 다수가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가장 큰 규모의 대한부인구제회, 영남출신 사진신부들의 친목 모임인 영남부인회 등이 대표적이다. 노선희, 앞의 책, 204-210면.

43) 앨런 브레너트, 앞의 책, 284면.

리를 구하는 광고”를 하는 등 “종교적인 구심점 역할에 머물지 않고 교민들의 사랑방 구실”⁴⁴⁾을 하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기는 하다. 『바람의 노래』에서 수향의 몸종으로 따라왔다 한인감리교회에서 맺은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인 부인회의 서기까지 되는 윌레의 경우처럼 교회는 이주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사진신부 서사에서 교회의 존재는 하와이 교민사회의 갈등과 반목의 중심에 놓여 있다. 『바람의 노래』와 『알로하 나의 엄마들』은 이승만과 동지회(한인기독교회)와 박용만과 국민회(감리교회)로 나뉘어 심각한 대립을 겪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사진신부의 남편들도 대부분 어느 한쪽 편에 독립자금을 내거나 임무를 맡아 독립운동에 가담하는 식으로 그려져 있다. 이 때문에 사진신부들 사이에서도 ‘파’가 나뉘고 모임이 해체 위기를 맞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과 대립이 결정적으로 사진신부들 간의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설 속에서 신부들은 중립을 지키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들을 편가르기 하는 교민사회와 교회의 밖에서 일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힘쓰는 모습을 보인다.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진신부들은 안과 밖, 이쪽과 저쪽, 주체와 타자의 경계를 동시에 접하는 역설적인 공간에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사진신부들은 친교 및 경제 공동체인 ‘계’를 통해 공고한 연대감과 소속감을 부여받고, 여기서 쌓은 새로운 인적, 경제적,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하와이의 아시아 결혼이주 여성에서 미국 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해간다.

3.2. 글로벌스케일로의 도약과 초국가적 가족 만들기

교민사회의 권력관계에 편입되지 않은 사진신부들은 일상에서 타민족 타인종과의 접촉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실

44) 임계희, 앞의 책, 244면.

협하는 주체가 된다. 농장에서의 생활이 일본인, 중국인, 필리핀인 등 타 아시아인과의 관계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도시로의 이주는 하와이 원주민과 하올레, 포르투갈인, 멕시코인, 푸에르토리코인 등 다양한 인종과 광범위하게 접촉하며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했다.

『사진신부 진이』의 서사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 하와이의 각종 사건 사고들 -집창촌 공격, 유색 인종에 대한 백인의 인종 차별, 유괴 사건과 총격전, 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을 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이는 하와이를 지상낙원이 아닌 “범죄와 인종 간 증오가 넘쳐나는 지옥”(391)임을 자각한다. 하와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고통을 당한 나라, 낯선 이방인들에게 진정한 민족성과 통치권을 박탈당한 나라”(164)로 인식되면서 진이는 하와이 원주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데 이른다. 인종, 민족, 계급 간의 위계질서에 노출되는 경험이 진이로 하여금 배타적 민족주의와 순혈주의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부당한 현실은 미국에 대한 나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어쩌면 이상에 젖어서, 미처 보지 못했던 현실이 이제야 뚜렷하게 보이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하와이는 스스로가 법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특권 엘리트 계층의 지배를 받았다. 우리처럼 피부색이 어둡거나 다른 나라 출신인 사람들은 그들 아래 존재하는 계층에 불과했다. 우리는 그저 하올레들이 하지 않으려는 고된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온 것이었고 그들의 눈에 우리는 단순히 노동자, 그들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하급 계층일 뿐이었다. (『사진신부 진이』, 406면)

이것은 사진신부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협상하면서 “초국가적 장에서 자신을 위치지우는 스케일 상승의 정치”⁴⁵⁾를 구사하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진이의 ‘옷 만들기’는 바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상의 수행적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이는 호놀룰루에서 파인에플 공장을 그만둔 후 양복점에 취직해 하와이 복식을 배울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후에 킹스미스 의류상을 운

45) 정현주(2012), 앞의 글, 114면.

영하는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 엘러리 춘의 제안으로 하와이안 셔츠 만들기를 시도하는데, 이 셔츠의 엄청난 성공으로 공장에서 수석 재봉사로 일하게 된다. 하와이의 가장 대중적인 관광상품이자 일본 이민자들의 작업복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진 하와이안 셔츠, 일명 ‘알로하 셔츠’를 소설은 한복과 하와이 전통 복식의 융합의 산물로 전유함으로써 진이의 생존 전략과 유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알로하 나의 엄마들』에서 버들의 ‘자수’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버들은 운영하던 구둣가게가 경영난을 겪자 가게 한쪽 구석에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조선 전통 문양을 수놓은 손수건이나 테이블 매트 등의 자수품을 만들어 판매를 시도해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다.

진이의 하와이안 셔츠와 버들의 자수는 단순히 서양 상품에 조선의 전통을 결합한 결과가 아니라 서양적인 것을 조선적인 것으로 전유한 창조적 산물이다. 이것은 이민자들이 정착 과정에서 주류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선주민(先住民) 역시 이민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관계적 지표’⁴⁶⁾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진신부들은 친숙하고 익히 ‘알고 있는 공동체’에서 타민족 타인종과의 관계망을 통해 ‘알 수 있는 공동체’⁴⁷⁾ 안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인식론적 확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진신부의 이런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자녀의 교육관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 때문이다. 소설에서는 이민 1세대인 부모와 2세대 자녀들 사이에 이민 가정에서 흔히 볼거릴 수 있는 세대 갈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두터운 신뢰와 공감은 편협한 민족 정체성을 강요하지 않는 사진신부의 태도와 가치관에 기인⁴⁸⁾하는 것으로, 자녀들의 초국가적

46) 김현미, 앞의 글, 147면.

47) ‘알 수 있는 공동체(Knowable Community)’란 표현은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시골과 도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입한 개념으로, 이선주의 논문에서 재인용했다. 이선주, 앞의 글, 54-55면.

48) 70년대 이후 이민 간 1세대 부모와 1.5세대 혹은 2세대 자녀 사이에 소통의 어려움이나 갈등은 이민가정의 핵심적인 문제로 알려져 있는데, 초창기 하와이 한인들에게는 부모와 자녀 간의 두터운 공감이라는 감정구조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선주, 앞의 글, 66-69면) 자녀들의 경험 구조상 일제강점기 국권 상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고향과 조국을 잃고 타향에서 고생한 부모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정체성 획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 자녀들 간의 이해와 소통은 이들이 “호놀룰루에서 나고 자랐고, 집에서는 한국어를 말하지만 학교에서는 영어를 쓰고, 친구들과는 피진어를 쓰”는데 익숙하고, “김치를 먹는 것처럼 사이민 국수와 햄버거를 함께 먹고” 큰 “한국계 미국인” “하와이의 아이들”⁴⁹⁾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하와이를 벗어나 미국 본토로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스스로없이 미국인, 일본인과 어울릴 뿐 아니라 나아가 자신을 ‘미국인’으로 정체화하기도 한다.

『알로하 나의 엄마들』에서 버들의 딸 ‘필’은 포르투갈계 아버지와 일본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미국인 피터와 연애를 하고,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엄마와 여느 모녀처럼 다투고 갈등을 빚고 화해하는 보통의 평범한 이민 2세대로 자란다. 『바람의 노래』에서 수향의 딸 크리스틴은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일본인 청년 다이스케의 연인이 되고, 아들 삼일은 미군에 지원해 일본에 맞서는 세계전쟁에 참가한다. 삼일운동 현장에서 사망한 독립투사 갑진의 아들임을 의식하는 삼일이나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군에 자진 입대한 버들의 아들 데이비드 모두 미국 본토에서 훈련을 받고 유럽 전선에 배치되어 일본군으로 징집된 조선 젊은이들과 싸워야 한다.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미국 시민이고 애국자라는 걸 보여줘야” 하고, 그래야 “원하는 곳에 취직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⁵⁰⁾기 때문이다. 미국인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은 이들 2세들에게 절박한 ‘생존’의 문제였던 것이다.

자녀들의 이 같은 자아 정체성은 다시 민족과 인종, 국가 경계에 대한 사진신부들의 인식을 역전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

삼일과 크리스틴은 주로 동족 친구나 소수 민족 아이들과 잘 어울렸다. 이웃에서 함께 자란 일본 청년 다이스케는 크리스틴과 오랜 친구였다.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그의 부모도 예외 바른 사람들이었다. 대부분의 교민들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도 그들과 상권을 교류했다. 수향은 일본인 개인에게는 아무런 적대감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이 미국인이나 타 민족보다 더 편안하게 느

49) 엘렌 브레너트, 앞의 책, 424면.

50) 이금이, 앞의 책, 376면.

껴졌다. (『바람의 노래』 260-261면)

“삼일야! 여기는 하와이 땅이다. 너는 여기서 태어났고, 크리스틴도 다이스케도 그렇다. 너희들은 젊고,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야. 나는 어느 종족이냐를 가르고 싶지 않구나. 주변에 타 민족과 결혼하는 동족들이 어디 한둘이냐. 그래도 중국인이나 필리핀인보다는 낫지 않나. 또 미국인보다도…….” (『바람의 노래』 273-274면)

일본인 다이스케와 연인관계인 딸 크리스틴, 미군으로 일본과의 전쟁에 나선 아들 삼일,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 수향은 “조선인이 미워해야 할 대상은 일본의 군국주의이지 일본인 개인이 아니며”(287), 개개인의 일본인 역시 “이 하와이 땅에서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일 뿐”(272)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수향은 일본의 오후우섬 공격으로 일본에 대한 하와이의 적개심이 고조되자 한복을 벗고 꽃무늬가 프린트된 하와이안 복장인 ‘무무(Mumu)’로 갈아입는다. ‘한복’으로 상징되는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전에”(287) “미래를 살아갈”(260) 크리스틴과 삼일, 그리고 다이스케를 모두 품는 것이 부모 세대인 자신의 소임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삼일의 죽음과 다이스케의 행방불명 이후 딸 크리스틴이 미군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철저히 “미국 사람으로”(325) 키우는데 여생을 바치기로 한다. ‘인삼 장수의 첩’ ‘사생아를 낳은 여자’ ‘지독한 여자’ ‘술집 어미’에 이어 ‘혼혈아 할머니’라는 모멸적인 호칭을 견디며 수향은 아이들의 고향인 하와이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수향의 인식이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민족’에 속박되지 않고 초국가적 네트워크 안에서 ‘개인’의 구체적 삶의 조건들을 발견해가는 데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알로하 나의 엄마들』의 서사는 이런 엄마들의 삶을 감싸 안는 딸의 시선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소설의 마지막에 꽤 긴 분량으로 배치된 <나의 엄마들>이라는 장은 대학생이 된 버들의 딸 펄을 초점 화자를 내세워 버들과 송화, 로즈 이모들의 후일담을 전한다. 버들은 “자기 이름보다 성을 먼저 쓰는” 그래서 “개인보다 가족을, 가족보다 나라를 우

선으로 생각”(336)하는 한국인의 가치관이 이해되지 않고 가정을 버려 두고 독립운동을 하다 병들어 돌아온 아버지의 삶을 “부끄러워해야 할지, 자랑스러워해야 할지, 불쌍하게 생각해야 할지 늘 헷갈”(347)리고, “엄마가 자신의 생애를 바쳤다고 해서 자식의 인생까지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다”(359)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자녀 세대의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다. 그러나 필은 자신의 현재가 “남편 떠난 여자, 남편 죽은 여자,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자”(333)인 버들, 송화, 로즈 이모들의 처절한 생존으로 만들어진 결과임을 모르지 않는다. 필의 존재는 하와이라는 낯선 땅에서 존재를 증명하고 자신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 분투해온 엄마와 이모들의 고단하고 치열했던 삶의 생생한 증거인 것이다.

엄마가 쉬엄쉬엄 말했다. 편안하고 환한 얼굴이었다. 나는 울음을 꼭 참고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가난해서 팔려 오거나 일본 없는 세상에서 편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처럼 꿈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이다. 비록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엄마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알로하 나의 엄마들』 386면)

『사진신부 진이』에서 진이는 20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호놀룰루 항구로 들어서며 “이곳이 내게도 고향임을 깨달았다.”(458)고 고백한다. 하와이를 진이의 새로운 ‘고향’으로 호명하는 이 장면은 하와이의 장소성이 전도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다.

하와이는 유행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과 평화가 넘치고 악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낙원이 아니다. 세상 모든 곳들이 그러하듯 사람들이 일하고 싸우며 살고 또 죽기도 하는 그런 곳일 뿐이고 앞으로도 그럴 터였다. 찰리 첸과 새디 톰슨은 진짜 현실 속이 인물이 아니지만, 창 아과나와 메이 톰슨은 진짜였으며, 나는 내게 가능성을 열어준 하와이를 사랑하고 아끼듯 그들과의 기억을 보물처럼 여길 것이다. (『사진신부 진이』, 457면)

이 소설은 1957년 사진신부 동료들과 자녀들의 축복 속에 환갑을 맞은 진이가 하와이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마치고 이민법을 통과해

미국 시민이 되었다는 짧은 후일담을 덧붙이며 끝낸다.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와이 사진신부로 왔던 진이에게 결국 하와이는 허상과 미망으로 채워진 상상의 낙원이 아니라 실재하는 가능성의 공간이 된 것이다.

『당신의 파라다이스』의 마지막 장면 역시 고향의 의미를 재사유하게 한다. 마지막까지 캠프 나인을 지키고 있던 심영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뿔뿔히 흩어져 살던 이들이 캠프 나인으로 ‘돌아온다’. 심영의 죽음이 주는 상실감이 “친어머니를 잃은 듯한 슬픔”이라고 할 때, “미국에도 한국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331)을 꼭 닮은 포와는 이미 새로운 ‘고향’으로의 장소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처럼 한인 사진신부 서사에서 고향은 단절된 기억과 향수라는 의미에 박제되어 있지 않다. 고향은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다공질(porous) 경계들을 지닌, 네트워크에 기반한⁵¹⁾ 생성의 장소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 “어느 곳에 있든 하와이, 그리고 조선과도 이어져 있”⁵²⁾다는 의식은 하와이가 디아스포라적 이동과 상호연결성에 의해 창조된 역설적인 고향으로 재맥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4. 나가며

본고는 20세기 초 역사적 실체로서의 하와이 사진신부의 존재와 이를 모티프로 한 소설 작품들을 분석해 한인 여성 디아스포라의 존재 방식과 함의를 제고해보고자 했다. 디아스포라 이주여성의 초기 모델로서 사진신부는 주어진 정체성을 변형시키고 교섭해가는 능동적 행위자였다. 이때 사진신부의 정체성이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스케일에서 인종, 계급, 젠더가 상호 작용해 형성된 결과라 한다면, 이 같은 정체성 형성 과정은 기존의 장소를 지배하는 제도 및 권력, 규칙과 협상하고 장소를 전유하면서 새로운 장소 만들기를 실천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51) 이영민, 앞의 글 55면.

52) 이금이, 앞의 책, 386면.

수 있다.

사진결혼 및 사진신부 모티프는 1920년대부터 2010년대에 걸쳐 희곡, 시, 소설, 동화 등 다양한 형태로 문학에 삽입되어 왔다. 이 가운데 임재희의 『당신의 파라다이스』, 앨런 브레너트의 『사진신부 진이』, 박경숙의 『바람의 노래』, 이금이의 『알로하 나의 엄마들』은 국가, 민족, 젠더라는 지배규범에 종속된 집단 명사가 아닌, 치열하게 자기 몫의 삶을 살아낸 개별자이자 단독자로서 사진신부들의 삶을 조명한 소설들로 주목해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2장에서 이 소설들이 자신의 신체와 가정, 집단 농장이라는 스케일에서 정체성을 협상하는 사진신부의 모습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사진신부들은 하와이 도착 후 기대와 상상을 배반하는 낮은 현실과 열악한 환경에 좌절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남편과의 협상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조정하고 생존 전략을 구사한다. 그리고 조선에서 자신을 정체화하던 기호들로부터 탈구된 현재의 위치를 인식한 뒤 확대된 가족으로 기능하는 집단 농장 한인캠프 선이주민 여성들과 유사 친정관계망을 형성한다. 이렇게 사진신부는 가정 안팎의 경계를 허물면서 타민족에게 뿌리 문화를 전수하고 타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문화 번역자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해간다.

3장에서는 이들 여성이 도시에서 인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초국가적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과 양상을 살펴보았다. 도시로의 이주는 사진신부들이 실질적 가장으로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노동력을 발휘하고 나아가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변모하는 결절점으로 작용한다. 이때 한인 사진신부 간의 ‘계’는 친교와 경제 공동체라는 이중의 기능을 하면서 이들이 아시아 결혼 이주 여성에서 미국 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어준다.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한인 공동체의 경계 안에만 갇혀있기를 거부함으로써 사진신부들은 배타적 민족주의와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인종, 민족, 계급 간의 거시적 위계 구조를 인식하고 실감하면서 점차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리고 초국가적 다문화 가족을 이룬 사진신부들에게 하와이는 디아스포라적 이동과 상호연결성에 의해 생성된 새로운 ‘고향’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처럼 사진신부 서사는 이들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과 복합적 지형, 관계의 역학과 같은 다양한 층위를 횡단하며 갈등하고 협상하는 이주 여성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서사의 출발점에서 사진신부들은 식민지 위계 안에 배치되지만, 이후 확장된 공간과 관계들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삶에 접합하며 자신의 영토를 만들어간다. 이것은 다층적 관계들 속에서 일방적으로 저항하거나 종속되지 않고 타협, 수용, 저항 등의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주류화의 헤게모니에 포섭되지 않고 이질적인 경계들을 횡단하며 자신의 위치를 재설정하는 스케일 상승과 도약의 정치를 통해 사진신부들은 유동적으로 형성되는 ‘사이 정체성’, 즉 트랜스 로컬의 주체로 자리매김해 간다.

이렇게 사진신부 문학 서사는 사진신부를 기존의 영토와 장소성에 도전하는 존재들로,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국가의 ‘대항-내러티브(count narratives)’를 통해 구성되는 단독자의 서사로 재현한다. 21세기 이주의 여성화가 가속화되는 다문화 지형에서 이 같은 사진신부의 재현방식은 한국 여성 디아스포라의 기원과 가능성을 사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제고해 볼 만하다.

[Abstract]

Representation of the female diaspora in Hawaii Picture Bride's Literary narrative

Lim, Jung youn(Anyang University)

In the context of gender geography and mobility discour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narrative representation method of the Hawaiian Picture Bride who emerged in modern colonial Joseon in the early 20th century. In response, this paper examines various genres such as novels, plays, poems, fairy tales, and oral statements, as well as literary texts based on photographic marriages and Picture Brides that exist over a wide range of periods from 1920s to 2020, and then reconstruct the actual truth of photographic marriage and genealogy of the Picture Bride's representation method, and analyzed the dynamic creation process of migrant women in the 21st-century Picture Bride's narrative.

In the Picture Bride's narrative, female characters create survival strategies in the home and reorganize their positions through subjective choices while accepting complex differences in cultures and norms on a multi-layered scale while forming a neighbor-dependent network. Through this, Hawaii acquires the meaning of another home for Picture Brides and a paradoxical place as a diaspora space.

In this way, in the context of trans migration, the Picture Bride can be reinterpreted as an active 'actor' who connects local and local beyond transnational discourse, negotiates one's identity,

and creates a new place. This method of existence of the Picture Bride needs to be meaningfully reconsidered in that it raises the origin and possibility of the Korean female diaspora in the multicultural landscape where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 in the 21st century is accelerating.

Key word : Picture Bride, Identity Change, Hawaii, Transnational Discourse,
Multicultural Environment

[참고문헌]

□ 기본자료

- 윤백남, 『운명』, 『윤백남 선집』, 백두산 편, 현대문학, 2013.
캐시 송, <사진신부>, 박남수 외, 『사진신부-재미대표작가문학선』, 월인, 2003.
최은경 『블루 하와이』 1,2권, 신영미디어, 2010.
임재희, 『당신의 파라다이스』, 나무옆의자, 2013.
앨런 브레너트, 『사진신부 진이』, 문학수첩, 2014.
박경숙, 『바람의 노래』, 문이당, 2015.
이금이, 『알로하 나의 엄마들』, 창비, 2020.
주요섭, 『구름을 잡으려고』, 1935.
조정래, 『아리랑』 4권, 해냄, 1994,
정세랑, 『시선으로부터』, 문학동네, 2020.
『매일신보』 『개벽』

□ 단행본

- 강준만, 『한국근대사산책』 6권, 인물과사상사, 2008.
고승제, 『한국 이민사 연구』, 장문각, 1973.
김성은 외, 『한국근대여성의 미주지역 이주와 유학』,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노선희, 『사진신부 이야기』, 북코리아, 2023.
문숙재·윤소영, 『결혼과 노동』, 교문사, 2000.
문옥표 외,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일조각, 2017.
이경민, 『경성, 사진에 박히다』, 산책자, 2008.
린다 맥도웰(Linda McDowell), 『젠더, 정체성, 장소』, 여성과공간연구회 역, 한울, 2010.
라셀 살라자르 파레냐스(Rhacel Salazar Parrenas), 문현아 역, 『세계화의 하인들』, 여이연, 2009.
로버타 장(Roberta Chang), 『하와이의 초창기 한인사회: 1903-1940』, 북코리아, 2012.
웨이인 패터슨(Patterson, Wayne), 정대화 역, 『하와이 한인 이민 1세: 1903~1973』, 들녘, 2003.

□ 논문 및 기타 자료

- 강진구, 「국제결혼담론의 계보학적 연구: ‘사진결혼’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 50권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1.
- 김지원, 「미국의 일본인 배척운동과 한인 사진신부의 이주, 1910~1924」, 『미국사연구』 44집, 한국미국사학회, 2016.
- 김지원, 「한인 사진신부의 적응과 특성, 1920~1945」,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55호, 2020.
- 김현미, 「결혼이주 여성의 가정(Home) 만들기:문화 접경시대 번역자로서의 이주여성」, 『비교한국학』, 18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0.
- 노선희, 「한인여성 디아스포라 공동체 연구-사진신부의 공동체, 영남부인실업동맹회(영남부인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34집, 2021.
- 오윤호, 「제국의 경계 공간과 디아스포라의 위치-하와이 사진신부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8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 이선주, 「하와이 이민 초창기 한인들의 감정구조」, 『한국학연구』 31호,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13.
- 이영민, 「글로벌 시대의 트랜스이주와 장소의 재구성」, 『문화역사지리』 25권1호, 문화역사지리학회, 2013.
- 이현재, 「여성의 이주, 다층적 스케일의 장소 열기 그리고 정체성 저글링」, 『여성문학연구』 2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 정현주,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지』 43권65호, 대한지리학회, 2008.
- 정현주, 「이주여성들의 역설적 공간: 억압과 저항의 매개체로서 공간성을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에 접목시키기」, 『젠더와 문화』 5권1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2.
- 정현주, 「다문화경계인으로서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대한지리학회지』 50권3호, 대한지리학회, 2015.
- 홍윤정, 「하와이 한인 여성단체와 사진신부의 독립운동」, 『여성과 역사』 26집, 한국여성사학회, 2017.